

방화에 관심을 갖는 보험 단체와 방화 관련 법규에 대하여



유 기 권
(대한재보험(주) 위험관리담당역)

1. 머리말

미국에서 방화(防火)에 관심을 갖는 보험 기관들 중 화재 예방에 관한 연구, 교육 훈련, 홍보 및 점검 활동 등을 하고 있는 미국 보험 서비스 그룹(American Insurance Service Group)과 미국 보험자 연합(Alliance of American Insurers) 및 HRP(Highly Protected Risks) 보험의 대표격인 Factory Mutual System을 간단히 소개하고, 선진국의 방화 관련 법규 및 손해 예방 활동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각종 법규들을 간단히 언급함으로써 국내 손해 보험 업계에서 위험 관리 업무를 수행해 가는데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2. 방화에 관심을 갖는 보험 단체들

가. AISG(American Insurance Service Group : 미국 보험 서비스 그룹)

1984년 비영리 단체로 설립된 AISG사는 미국에서 역사가 깊고 규모가 가장 큰 보험업자 협회인 미국 보험 협회의 한 종속 회사로서 재산·특종 보험 업계에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국 보험 협회는 1964년 화재 보험 업자 전국위원회(1866년 조직됨), 특종 및 보증 보험 협회(1926년 조직됨), 전 미국 보험 협회(1953년 설립)를 합병함으로써 설립되었다.

AISG에 의해서 제공되는 중요한 서비스 중 엔지니어링 및 안전 서비스 업무는 화재 보험 업자의 전국위원회의 역할을 직접 계승한 것으로 1987년 현재 재산·특종 보험회사의 약 90%를 대표하는 250여 보험 회사를 회원으로 확보하고 있는데, 주로 그 회원사들의 기술 및 손해 사정 담당 직원들에게 정보, 교육 및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 이 서비스 그룹은 이런 역할을 일련의 기술 보고서들 및 회

보, 훈련 계획 및 상담들을 통해서 완수하는데, 다양한 기술적인 범주의 주제들을 취급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들의 위험 관리 개념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일러 및 기계류, 빌딩 기술, 상용차, 건설 공사, 위험 요소, 범죄 예방, 환경 과학, 방화, 산업 위생, 직업 안전과 보건, 오염 통제, 제품 안전 및 특수한 화학 위험 요소들이다.

이 회사는 다양한 사고 예방 간행물, 화재 예방 교육 자료, 조립식 건축 부품들의 내화 성능에 관한 전문 간행물을 물론 이외에도 수많은 관련 사항들에 대해서 간행물을 발간한다.

나. Alliance of American Insurers(미국 보험자 연합)

1922년에 조직된 이 연합체는 150개 재산 손실 통제 및 특종 보험 회사들로 이뤄진 전미국에 걸친 조직으로 그 회원사들에게 엔지니어링, 법률적인 그리고, 교육 및 홍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기관의 직원은 열마동안 화재로 인한 손실 예방 연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일은 회원사들의 엔지니어들과 다른 기술적으로 자격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손실 방지위원회 및 이 위원회의 화

재 안전 소위원회로부터 조언을 받아, 사고 및 화재 예방부를 통해서 이뤄지고 있다.

손실 통제부(The Loss Control Department)는 방화(防火), 안전 및 산업 위생에 관한 기술적인 세미나를 개최하고 회사의 손실 방지 요원들을 위한 광범위한 교육·훈련용 자료들을 발행한다.

화재 안전 자료들은 “화재 위험 판별법” 및 “간단하게 만든 물공급시험”에 관한 시리즈를 포함하며 이외에도 “미국 보험 저널” 및 다른 일반 정보 프로그램은 화재 안전 및 방화 방지 자료들을 보험 업계, 행정부 및 일반인들에게 보급하고 있다.

다. Factory Mutual System (약자 : FM System)

The Factory Mutual System은 3개의 대규모 상호 보험 회사들(Allendale, Arkwright, Protection Mutual Insurance Co.)과 2개의 FM System의 부속 기관(Factory Mutual International,

Factory Mutual Engineering and Research)과 Factory Mutual Research Corp.으로 구성되어 있다. FM System은 1835년에 미국 및 캐나다에 대규모 산업체 및 상업용 재산물의 상호 화재 보험 담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립되었으나, 지금은 규모면에서 다국적 기업이 되었다.

이 System의 목적은 재산상의 손실과, 화재, 폭발, 바람, 봉고 및 전통적인 보일러 및 기계 사고와 같은 위험으로부터 관련된 생산의 중단(기업휴지)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또한 이 System은 각 공장들의 손실 예방 점검, 조사 연구 및 보험 계약자에게 자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최소의 경비로 보험 담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이 System은 화재 시험 및 인증 업무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1973년 이후 FM System은 여러권으로 된 가제식(加除式) 책자인 “손실 예방 자료집”(Loss

Prevention Data Books)을 발간해 오고 있는데 FM System에 보험을 가입한 회사들은 추록 서비스와 함께 이 책자를 받아 볼 수 있다. 이 책의 내용은 화재, 폭발, 폭파, 전기 고장 그리고 보일러 및 각종 기계류 사고에 대한 정보 및 권장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FMRC(Factory Mutual Research Corp.)는 또한 화재 및 폭발 위험에 관한 교육 훈련용 영화를 제작하고, 많은 손해 예방 자료들을 발간하는데 그중에는 “재산 보호 편람”(The handbook of property conservation) 및 “The Factory Mutual Record”가 있다.

전자는 264페이지로써 포켓에 넣을 수 있는 소책자로 제작 재산 보호 담당자로 하여금 공장 조직을 적극적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꾸민 편람이고, 후자는 격 월간으로 발행되는 재산 보호 기술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FM 회원들에게 무료로 공



급되고 구독도 가능하다.

3. 방화 관련 법규들

위험 관리 업무 중 안전 점검의 주요 목적은 보험 대상물에 관한 손해 발생의 원인과 확산 요소를 사전에 발견하여 이를 개선함으로써 각종 사고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법규와 기술 기준들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간략하게 알아 보고자 한다.

전 세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방재(防災) 분야의 바이블에는 미연방 소방법인 National Fire Code(전 15권)가 있고, 화재학(Fire Science)의 기초 이론에서 화재의 예방, 감지 및 진압 대책 등 화재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술한 책자로써 Fire Protection Handbook(미방화협회 발행)이 현재 7판까지 나와 있다. 또한, 미국의 주요 산업별(20여 업종) 화재 위험 요

인과 방화(防火) 대책, 특수한 공정 및 일반 작업장에서 화재 사고 원인 및 그 예방 대책들을 기술한 Industrial Fire Hazards Handbook(미방화 협회 발행) 등이 있다.

그리고 영국의 제조 공업에서 생산 공정과 제품의 저장 및 수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 예방 대책을 논한 “Loss Prevention In The Process Industries”란 책자가 나와 있고, 독일의 알리앙스 시험 연구소에서 펴낸 “Allianz Handbook of Loss Prevention” 책자는 엔지니어링 보험의 사고 유형 및 손실 예방 대책을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 실제적인 위험 관리자의 역할과 위험 관리 업무에 관한 내용을 총망라하여 기술한 책으로 Practical Risk Management란 가제식(Binder) 책자가 2권으로 나와 있다.

4. 맷는 말

끝으로 선진국은 대형 사고 후에는 그 사고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 검토, 평가하고 대책을 마련한 다음, 다시는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종 법규로써 규제한다.

따라서 최근에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대형 사고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제 성장만 추구했지 경제 성장에 못지 않게 중요한 화재 안전 및 각종 사고 예방 측면을 도와시한 결과가 아닌지 생각하면서 우선적으로 국내 손해 보험 업계의 위험 관리 업무를 더욱 활성화시켜 각종 방화 대책 및 손해 예방 대책을 강구도록 하여야 하겠다. 더 나아가 우리 사회가 경제 발전 계획 단계에서부터 모든 분야의 사고 예방 대책도 함께 수립함으로써 불의의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